


봉사하는 불교, 시사선원 02) 745-8503  
 11) 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 734-2680  
 대전 논산시 현산면 송정리

**법어 조대** **도견 스님** 대구 금성사 조실



"겉보기만 불교를 믿지 말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계를 철저히 지켜야 수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잡념과 망상, 계음을 건지는 지렛대입니다. 계를 수지하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참회 발원하는 출가-열반절

이 달에는 부처님오신날, 성도절과 함께 불교4대 명절인 출가절(음력 2월8일)과 열반절(음력 2월15일)이 들어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찾아 떠난 출가절이 21일(양력)이고, 일체의 번뇌를 끊어 영원한 자유에 드신 열반절이 28일(양력)이다. (신가귀감(神家龜鑑)에서는 불교의 처음과 끝인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다.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다.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생사를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2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예년처럼 부처님의 출가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법회를 봉행한다. 봉행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일 만배 참회정진을 실시하고, 정토회는 하루 1천배 등

단기출가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각 사찰과 단체들은 저마다 철야용맹정진과 함께 큰 스님 설법, 3천배, 합선, 참회기도, 사경, 독경법회, 열반경 산림법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새롭게 발원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올해 출가 열반절은 종단차원에서 공식화되고 생활 속에 정착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2일, 21일부터 28일까지를 '출가열반절 108 참회발원정진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각 사찰 신도회 및 직장 지능, 신행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상적인 수행문화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입재식에 이어 각급 신도회와 포교단체, 직장기능단체 회원들이 매일 릴레이 108참회정진을 하게 된다. 오는 28일 오후 7시 화랑법회에서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의 법어를 듣게 된다. 포교원은 이번 출가 열반 행사를 통해 참회 및 발원정진하는 신도상을 정립하고, 신행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의 확산을 위해 출가열반절 안내서 및 108대화회론 소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02-733-7277. 김재경(취재1부 차장)

## 체험 프로그램 짜기에 부심

### '템플스테이', 시설개보수 마쳐... '진척도 40%'

월말 관광예약 가동·홍보물 25일까지 제작  
 30여개국 대사부부 초청 불교 체험케

1. 시행, 두 달 앞으로...
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월드컵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운영에 따른 준비도 바빠지고 있다.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42일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게 될 템플스테이 사업이 지난 2월말 31개 사찰을 운영사찰로 선정(문지 359호 2호 기사 참조)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사람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 수용을 위한 시설 개 보수를 끝낸 상태며, 개별 프로그램 마련 등 자원봉사자 활용 등 세부 운영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달 20일경 템플스테이 홈페이지가 개통되고, 이달말에는 관광객 예약 프로그램도 가동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초에는 템플스테이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는 1인당 하루 3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리플릿, 포스터, 책자 등 템플

스테이 홍보물을 이달 25일까지 제작, 운영 사찰에 배부하는 한편, 다음 달 중으로 한 두 차례 각 사찰 실무자 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말 선발전 163명의 통역봉사자 외에 추가로 100여 명을 더 선발전 사찰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여개국의 주한 외국인 대사 부부를 초청, 5월 중순경 직지사에서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한다는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준비상태를 4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템플스테이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운영사찰 선정이 늦어지는 등 우려곡절을 겪은 데다, 예산마저 크게 줄면서 사업추진이 늦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봉원사, 관문사 등 다른 사찰보다 한달 더 늦게 운영사찰로 선정된 6개 사찰은 재원 및 세부일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봉원사 총무국장 선암스님은 "시설은 이달말이면 완비가 되지만 아

직까지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운영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국과 운영 사찰들은 아

직까지 완비돼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확보 등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족에 따른 충분한 자료 및 프로그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10억원의 예산 외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운영자금 2억원을 정부에 추가 요청할 방침이다.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주경스님은 "남은 기간 동안 사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ews.com



**조피일 연꽃등 만들어**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이 2달여 가량 남은 14일 강화선원사에서 초파일 법회를 마치고 주지 성원 스님과 신도들이 대동방에 둘러앉아 조피일 연꽃등을 만들어 즐겁게 법담을 나누고 있다. 자신의 연등을 직접 만들어 불을 밝혀 보는 것도 부처님오신 뜻이 되새기는 일일 뜻. 강화선원사=고명배기자

## "법당 경찰난입 묵과 못한다"

대불청 등 범종교인 청년학생규탄대회서 촉구

지난 10일 오후 조계사에서 들어온 발전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대불청에 경찰이 난입한 사건에 대해 불교계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총무원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등은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범종교인 청년학생 규탄법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실무자인 총로경찰서장 파

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등 10여개 불교단체도 1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현장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조계사 신도회와 청년회 등도 11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총로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불자들의 규탄이 잇따르자 김운선 총로경찰서장이 11일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을 사과방문한데 이어, 이

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도 12일 조계사를 방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총무원 측이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들의 퇴거를 서면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불청은 15일 경찰 투입 요청에 대한 공개질의서 총무원에 전달했으며, 재가연대와 청정화합시민연대도 14일 대웅전 난입에 대한 경찰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공권력 투입요청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인간신문 2·3면 한명우 기자

## 물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조계사 공권력 난입

1. 지난 10일 발전노조원들의 검거를 위해 조계사에 경찰병력이 투입된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종교의 신성성을 경시하는 공권력의 태도 ②불교계의 위상 저하 ③종단의 미온적 대처 ④기타
2. 향후 어떻게 결론지어야 할까요?  
 ①서울경찰청장이 사과했으니 마무리해야 ②경찰과 종단의 문책성 인사조치 뒤따라야

실문 참여: 3월 2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362호 9면에 실립니다.

**현대불교 신** 문사가 5대 이 동통신을 통해 업그레이드 위해 실시중단

**불교컴퓨터** 다운로드 받기, 모바일 백과좌 법회 등 새로운 이벤트와 서비스를 위한 조치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네티즌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전자칼리인등**  
 범종교인(불기, 각종법회) 등 목적 기, 발우일출

조계사 서대문구 신촌 12 (02) 725-2650 (F) 佛心院

## 태고종 대각정진 대법회

화합종단 새 진로 모색, 승정 9명 추대식도

태고종은 종도들의 화합과 종단의 새 진로모색을 위한 태고종도 한마음대각정진 대법회를 2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 내분사태 과정에서 빚어진 원로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정신적 지도자로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원로 9명

##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설법대회

3월 23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 ■본사·조계사청년회 공동 주최

## 내소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봉안식

서해의 진주 변산반도 관음기도도량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원력으로 633년 해구선사께서 창건한 내소사는 관음조(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의 진신로 유명합니다. 법당을 완공하자 화공이 단청을 하기위해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단청을 다 끝내고 나올때까지 이 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도록 화공이 나오지 않자 호기심 많은 선우스님이 살짝 문을 열고 법당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공은 없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색영롱한 새(관음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스님을 보더니만 단청 한 곳을 못한채로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그 관음조는 능가산 중턱에 앉았는데, 그때 부터름 노스님이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스님을 관음조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며, 이후에도 암자에는 스님들이 살았으나 어느 때부터 암자는 폐쇄되고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암자터를 복원하여 관음전을 새로 지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갖게 되니 서해 진주 변산반도 능가산에 그 가피가 가득하고 사부대중 복덕과 지혜가 증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능가산 진달래 밋꽃은 관음의 미소요  
 종달새 소쩍이 노래는 남순동자의 법문이라  
 멀리 바다의 긴 아저머는 온 천지에 너울너울 춤을 추니  
 겹겹한 산봉우리 마다마다 불소식 미소가 가득라네

회 주: 우암 혜산  
 선 원 장: 한벽 철산  
 주 지: 진원·사부대중 합장

**봉불식 안내**  
 \*일 시: 2002년 4월 13일 오전 11시(불기 2546년 3월 초하루) 토요일  
 \*장 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관음전  
 \*연락처: 063-583-3030(주지실) 583-7284(총무실) 583-7281(종무소)

**법 회 안내**  
 \*특별정진법회 (해인 대웅사 추모회, 내소사 다경회, 전통회 참전 정진법회): 음력 3월1일 - 3월7일  
 \*철야용맹 정진 및 천도재 안내: 매월 2주 토요일 밤 9시부터

◆ 내소사 전경 (진선 부분이 신축한 관음전 모습)